

녹동 신항 관리 '엉망'

임출항 업무 파악 직원조차 없어 일부 선박들 항만 사용료도 안내

고흥군 녹동 신항에 출입하는 선박 중 상당수가 임출항 신고를 안 하는 수법으로 항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관리를 맡고 있는 전남도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녹동 신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2002년 4월 398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 공사를 완공한 연안항으로 전남도가 항만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임출항 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지 않고 선박회사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당

수 선박들이 항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녹동항을 이용해온 G해운 소속 1천399톤급 일반화물선의 경우 총 139회, S해운 소속 1천996톤급 일반 화물선은 총 141회를 미신고하여 1회 당 2~6만원에 달하는 항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동항은 제주산 굴이 출하되는 11월부터 연안화물선이 많아지는데도 관리대장에는 2005년 11월 이후 연안화물선의 임출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항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선박회사에서 전남도에 FAX로 임출항 신고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는 등 전남도의 연안항 관리 업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모 선박회사 관계자는 "FAX로 임출항 신고를 하겠다고 문의했으나 담당자가 도청이전때문에 바쁘다며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방치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선박회사 관계자는 "임출항 관리는 공익요원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수백여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건설해 놓고 당연한 분야야 될 사용료를 안 받는데는 민망한 직무유기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산골 마을에 도서관 문열어

곡성 죽곡면 하하리 주민들 참석 개관식

곡성의 산골 마을에 도서관이 개관됐다.

농촌진흥청은 22일 곡성군 죽곡면 하하리 마을 회관에서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산골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해온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한쪽에 개관된 이 도서관에는 모두 6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마을 주민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도서관을 마련하는데는 지난 84년부터 3년동안 이 마을 압록초등학교 하하리분교에 근무했던 인천 청량초등학교 박행숙(55)교사의 주선으로 청량초교에서 450여권을 기증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

하하리 마을은 경관이 수려해 농촌진흥청이 2005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선정해 민박가구를 조성키로 하고 18가구에 1천만원씩을 지원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민박촌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순천대-광양민권협신협

중소 기술개발 설명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단(단장 김병일 교수)과 광양민권협신기업협의회(회장 강문식)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 관련부서를 초청하여 20일 오전 10

시 순천대 우석홀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정책 브리핑과 함께 실질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게 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민원인들에게 전문가 수준 서비스"

영암군 군수 비서실 직원 전문가 수준 교육 화제

민선 4기 '영암호'를 이끌고 있는 김일태 영암군수가 부속실에 근무할 별정직 비서실장 등 2명을 채용한 후 서울에 있는 한 전문 비서교육 기관에 입소시켜 화제다.

김 군수는 지난 1일 박모(38), 최모(24)씨 등 2명을 별정 6급과 일용직으로 채용, 군수실 방문 민원인 안내 등 비서 업무를 시작했다.

군은 행정 경험이 없는 이들이 군수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동안 전문 비서 단기 교육반에 입소시켰다.

군비 60여만 원을 들여 실시한 이번 교육 과정에는 'CEO를 보좌할 최고의 비서가 되기 위한 마인드 확립', '상사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상사의 인맥과 직결된 전화업무' 등 하루 8시간의 강도높은 교육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일단 단기 교육을 다녀 온 효과가 있을 경우 2주 과정의 전문 교육기관에 입소시켜 고품질 군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군민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서비스 행정을 펼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민선 4기 출범 전북단체장 인터뷰

"고용창출 우선... '잘사는 순창' 건설"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사업이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잘사는 순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강인형(59)순창군수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민선4기 포부를 밝혔다. 강 군수는 또 "지난 4년동안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준비는 적게 들이고 국가예산을 확보해 추진했

강인형 순창군수



소득사업 지속 전개 '삶의 질' 향상 주력

며, 민선4기에도 다년간 중앙정부에서 쌓아온 공직생활 경험과 강한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경제군수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가능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군민공청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선3기는 장수와 장류 그리고 정주기관 조성사업과 브랜드

순창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농업 문제는 농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는 농민군수가 될 것임"도 약속했다.

또한 "군민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은 년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임기동안에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강 군수는 "앞으로 민선 4기에도 결코 변함없이 군민여러분

장류 산업 중점 지원 농촌 경제 희생 역할

찾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순창에서 지방자치의 꽃이 피는 모범 군으로 만들겠다"며 "군정의 맥이 끊기지 않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앞으로 순창을 변화시킬 발전구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면서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정열을 다 바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기자 hslse@

수술없이 전립선질환 '한약'으로 근본 치료!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분비선으로 방광만 큰 전립선염, 전립선비대, 전립선암이 있다. 전립선질환은 치료받지 않으면 방광은 날로 무거워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리며 삶의 퍼펙트 정도도 떨어진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증상만을 잡는 '표치'를 하였던 때문이다. 한약으로 근본치료를 하게 되면 전립선질환은 완치가 치료될 수 있다.

- 30년 고향 민성전립선염 2개월 만에 정상으로

전립선염은 20~50대 남성의 30%이상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유난히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며 소변에 힘이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따르며 일단 전립선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임종현의원 손기정 원장(www.ijung.co.kr)은 "그동안 전립선염에 대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10년간의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친 끝에 개발된 한방약 '일종'의 탁월한 치료효과는 민성전립선염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순수 한방재료로 구성된 '일종'은 전립선의 염증을 및 억제하는 항염, 항생제 항기사용으로 인한 내성까지 극복하는 3가지 치료효과를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고 강력한 증진효과를 일으켜 완치를 유도"라고 했다.

종도구 부아동의 진 모씨(64세). 전에 치료하던 병원의 "원본 쓰지 않겠다"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치료에 대한 불신감으로 한방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2개월만에 완치된 치료되어 전에 치료하던 병원에서 경악 반응을 보였다.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병원 직원도 한약으로 전립선염이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경악 반응을 정도로 완치되어 현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 소변을 자주 보거나 빛도 시원치 않은 전립선비대

전립선염에 비교적 젊은 남성들의 전립선비대 전립선비대는 대표적인 남성노년성 질환이다. 방광의 압력을 높여주고 있는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요도를 눌러 소변 보는 횟수가 증가하고 배뇨시작이 늦어지며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볼 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는다. 전립선비대는 남성호르몬 분비의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민성전립선염 환자 2000여명 치료하여 탁월한 효과 검증 전립선비대로 인한 배뇨장애, 치료 후 소변 '시원' 국립대의대에 실험 의뢰한 결과 전립선염에 치료효과 입증

추적되며,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요법과 수술적 방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심혈 비대증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커져 커진 경우는 그 크기를 다시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지 않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가장 큰 불편한 배뇨장애의 증상은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손 원장은 "전립선비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장(腎臟)과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보강해 주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이뇨(利尿)작용을 강화하는 한약을 복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직장으로 직장 주입하는 '일종'을 함께 사용하면 출혈 호르몬이 훨씬 줄어들어 소변이 시원해질 수 있다고 한다.

- 한약요법 'PSA' 수치도 낮춰

전립선질환의 검사에서 꼭 지켜져야 할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액 중에 전립선 특이 항원인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검사 항목이다. 전립선염이 있을 때 혈중 PSA수치가 증가하는데 전립선염의 진단이나 치료 후 추적관찰에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임종현의원에서는 최근 몇 개월 사이 전립선염 환자도 전립선염 의심환자에게 한약 치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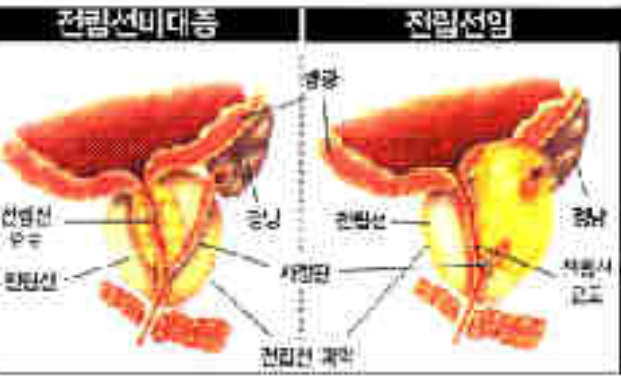


를 복용하게 한 결과, 혈중 PSA수치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심혈의 PSA수치가 148.3이나 되었던 이 모씨는 한방치료와 임종현의원의 치료를 경험 후 PSA수치가 8.4로 감소되었고 이후 임종현의원의 치료받으면서 PSA수치는 0.7로 떨어졌다. 전립선염 의심 환자 안 모씨도 약 1년간 임종현의원의 치료로 7.0이었던 PSA수치가 3.0으로 떨어졌다.

현재 손 원장은 한약 치료법 통한 PSA수치 감소 사례에 대한 통계는 발표할 준비중이며 한약재의 전립선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대의대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전립선염에 상당한 치료효과가 입증되어 곧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손 원장은 "PSA수치의 감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곧 한약재를 통해 전립선염 치료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상담문의 전립선질환 전문 임종현의원 02)585-9600



"완도 태풍피해 집중 지원"

전남 첫 특별재난지역 선포

완도군이 발 빠른 재난행정으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사진)

완도군은 지난 9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상륙에 대비,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수욕장이나 낚시터 출입을 통제, 인명피해 발생을 미연에 예방했다. 또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발생액에 대한 즉시 보고 체계를 확립했다. 완도군의 이같은 노력으로 정부는 최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3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74.6%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우선한 의료·방역·방재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김종식 군수는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 사업비를 집행, 주민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고창군 특별교부세 9억 확보

고창군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도심 교통소통대책사업비 3억원, 고창도시기원도시 관리사업비 3억원, 고창살내체육관 건립 3억원으로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도심교통소통대책사업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 및 관광객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그간 어려움이 있던 주차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됐으며 도시공원조성관리사업에 활기

를 띠게 됐다.

또한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이 어려워 생활체육이 침체되어 가던 중 이번 고창살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문화 수준 향상, 생활 체육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고창=김준원기자 jykim@